



전원 득점 승리 합작... 이것이 '원팀 코리아'



“아자~ 아자~” 20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라라 봉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X조 예선 남북 단일팀과 인도의 경기. 남측 강이슬이 골밑 돌파로 슛을 성공하며 추가 자유투를 얻어낸 뒤 북측 김혜연, 남측 김소담, 최은실 등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인도에 104대 54 대승... 오늘 카자흐와 조별리그 최종전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가 인도를 상대로 화끈한 대승을 거두며 우승을 향한 순항을 다시 시작했다.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단일팀은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라라 봉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조별리그 X조 3차전에서 104-54로 승리했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딱 들어맞은 경기였다.

북측 선수 3명을 포함한 12명의 단일팀 선수 가운데 아직 합류하지 않은 박지수를 제외한 11

명의 선수가 모두 출전했고 전원이 점수를 올리며 승리를 합작했다. 그야말로 ‘원팀’ 코리아의 면모를 보인 승리였다.

대만전 2점 차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한 단일팀은 조별리그 3경기 2승 1패가 됐다. 3전 전승인 대만에 이어 조 2위다.

단일팀은 곧바로 21일 카자흐스탄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 수 아래인 인도를 상대로 단일팀은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시작과 동시에 김한별과 로숙영, 임영희가 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8-0으로 점수를 벌였다.

1쿼터에 이미 22-12로 점수 차가 벌어지자 이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2쿼터부터 선수를 다 바꿔 벤치 멤버를 기용했다.

벤치 멤버들은 점수 차를 더 벌렸다. 북측 장미경의 빠른 돌파에 이은 득점에 강이슬의 3점 포가 지 터지면서 49-22로 전반을 마쳤다. 유일한 고교생 박지현도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4쿼터 들어서는 대만전에 쉬었던 북측 김혜연까지 코트로 나와 3점 슛을 꽂아넣었다.

강이슬이 가장 많은 17득점을 올렸고, 박지현도 12득점에 리바운드 7개, 스틸 5개를 찍었다.

장미경과 박하나, 최은실도 각각 11득점을 넣었다. 장미경은 어시스트 8개에 스틸도 5개를 기

록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1·2차전에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한 로숙영은 1쿼터만 뛰고 4득점, 리바운드 1개, 어시스트 2개, 스틸과 블록 슛 1개씩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장엔 이날엔 국무총리와 김일국 북한 체육상,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찾아 나란히 경기를 지켜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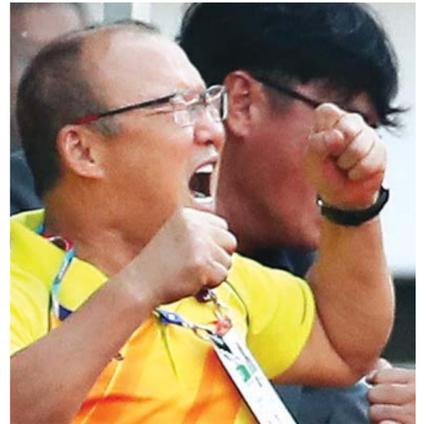
이들은 무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단일팀의 활약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관중석엔 1·2차전보다 더 많은 200여 명의 남북한 교민 응원단이 한반도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이겨라 코리아’, ‘한내라 코리아’를 연호하며 선수들에게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

日 잡은 ‘박항서 매직’

베트남 축구 1-0 승... 16강 진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은 ‘승장’ 박항서 베트남 감독은 당당했다.

박 감독은 지난 19일 남자축구 D조 3차전에 승리한 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에게 먼저 공을 돌렸다.

그는 “꼭 일본을 이겨야겠다는 선수들의 열정과 집중력이 돋보인 경기였다”며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기자는 일본이 베트남보다 한 수 위에 있음을 전제한 듯 1대 1 상황에서 베트남 선수들이 더 많이 공을 가져간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박 감독은 “베트남이 일본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하며 “감독으로서 선수를 믿었다. 피지컬과 기술에서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아직 23세 이하(U-23) 경기나 A매치에서 일본을 꺾은 적이 없다. 이번엔 일본이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렸지만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무대에서 거둔 값진 승리다.

일본을 꺾으며 베트남 축구사에 또다시 한 획을 그은 박 감독은 16강을 통과하면 베트남 첫 아시안게임 8강 진출에도 성공하게 된다.

한국과의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 박 감독은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난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이라며 “누구를 만나는 간에 베트남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1-0 승리로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거두며 베트남이 열광하고 있다.

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신화를 만든 박항서가 다시 한 번 베트남 축구 역사를 쓸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현지 언론이 20일 대서특필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응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번번이 金 빛나갔던 탄환... 진종오 오늘 마지막 도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 사격장에서 남자 10m 공기권총에 출전하는 진종오가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격 예선·결선... 태권도 겨루기 이아름·이다빈 출전

‘사격 황제’ 진종오(39·KT)가 아시안게임 한 풀이에 나선다.

진종오는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 슈팅 레인지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 이대명(경기도청)과 함께 출전한다.

한국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본선, 오후 1시 45분부터 결선이 진행된다.

진종오는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4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한 한국 권총의 간판스타다.

권총 한 자루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룬 그지만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은 아직 가져오지 못했다.

그는 총 4차례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에서만 3개의 금메달을 땀을 뻘 개인전에서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라는 ‘사격 황제’답지 않은 성적 을 냈다.

진종오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10m 공기권총 한 경기만 나선다.

그의 주 종목인 50m 권총은 이번 대회에서는 제외됐고, 10m 공기권총 혼성 대표팀 선발전에

서는 김창용에게 밀렸다.

마지막 아시안게임이라는 ‘압박’을 스스로 불어넣으며 특별한 각오로 이번 대회를 준비한 진종오에게 한을 풀 기회는 단 한 번이다.

태권도 겨루기에서는 여자 57kg급 이아름(고양시청)과 67kg 초과급 이다빈(한국체대) 등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중 이아름은 현재 세계 랭킹 2위로 지난해 무주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올해 아시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펜싱에서는 하태규(29), 손영기(33·이상 대전 도시공사)가 출전하는 남자 플뢰레, 강영미(33·광주 서구청), 최인정(28·계룡시청)이 나서는

여자 에페 경기가 열린다.

박태환이 빠진 수영에서는 ‘한국 여자수영의 투톱’ 안세현(SK텔레콤)과 김서영(경북도청)에게 기대를 건다.

안세현은 주 종목인 접영 100m에서, 김서영은 개인혼영 400m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인 양궁은 리커브 남녀 예선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일정을 시작한다.

여자 배구는 카자흐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을, 여자 축구는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3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시리아 ‘위대한 도전’

내전 아픔 속 축구 16강

지나해 10월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의 마지막 희망이 안타깝게 꺾였던 시리아 축구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시리아 U-23 축구대표팀은 19일 열린 동티모르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C조 최종전에서 5-2 대승을 거뒀다.

조별리그에서 2승1패(승점 6)를 따낸 시리아는 3연승으로 조별리그를 끝낸 중국(승점 9)에 이어 조 2위를 확정하며 16강행 티켓을 품에 안았다.

2006년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해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시리아 12년 만에 나산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16강에 오르는 기쁨을 만끽했다.

시리아는 2011년 3월 이후 6년 반 동안 내전을 치르면서 국가의 기능을 잃었을 정도로 폐쇄된 상황이다.

정부군과 반군은 물론 이슬람국가(IS)까지 가세한 내전으로 지금까지 33만여명이 사망했고, 600만명이 시리아를 떠나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황폐해진 국민의 삶에 축구는 내전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시리아의 16강 상대는 팔레스타인이다.

힘겨운 국내 사정 때문에 수많은 난민이 발생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자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연합뉴스